

# 계속된 두 아들 선발 논란에 퇴진 결단



허훈 선발, 경기력위원회와 이견 인정  
“두 아들이 나때문에 오히려 피해봤다”  
무기력했던 이란전 전술부재도 한 몫

남자농구국가대표팀 허재(53)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 경기력 부진과 선수 선발에 관한 논란이 거세지자 스스로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대한농구협회는 “허 감독이 4일 사의를 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5일 발표했다. 13일 요르단 원정, 17일 시리아와의 홈경기로 진행될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2라운드 김상식(50)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아 팀을 지휘한다. 대표팀은 7일 인천선수촌에서 소집된다.

### ●갑작스럽게 심경변화를 보인 허 감독

허 감독의 사임은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다.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4일 회의를 갖고 남자농구대표팀의 AG 경기력을 평가하고, 월드컵 예선에 대비한 선수 선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감독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직접 꾸린 대표팀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논의 결과를 허 감독에게 전달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허 감독은 사임 의사를 경기력향상위원회에는 전달하지 않았다. 허 감독과는 별개로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전원 사임을 결정하고 협회에 통보했다.

그런 뒤 상황이 바뀌었다. AG를 마치고 4일 오전 귀국할 당시만 해도 “팀을 잘 추슬러보겠다”고 말했던 허 감독이 협회 고위관계자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허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수 선발에 있어 논란의 중심이었던 허훈(23·KT)을 AG 멤버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 경기력향상위원회와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두 아들이 감독이 아버지라는 점 때문에 피해를 더 봤다는 발언을 했다. 두 아들 대표 선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듯 하다.

●선발보다 더 논란이 된 경기력  
허재호 문제의 핵심은 선수 선발에도 있었지만 가장 큰 부분은 경기력이었다. 이란과의 AG 4강전에서 별다른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완패했다. 귀화선수 라건아(29·현대모비스)가 분전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이란이 강호지만 전술적으로 준비했던 부분이 이뤄지지 않아 경기 내내 끌려 다녔다. 허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또한 선수 활용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남았다. 간간히 슈터 2명을 동시에 기용했는데 이 부분이 독이 됐다. 신장이 큰 이란 선수들을 봉쇄하기 어려웠다. 선수의 활용폭도 이전 경기보다 제한적이었다. 경기의 중요성을 감안해 소수정예로 경기를 운영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수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수비에 장점을 가진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다.

AG를 앞두고 오세근(31·KGC), 김종규(27·LG), 이종현(24·현대모비스) 등 부상자들이 대수 발생했지만 그들이 없다는 이유로 이란전 부진이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수시로 소집되는 대표팀은 핵심 선수 부상을 고려해 충분한 대비를 해놓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표팀 사령탑이었던 허 감독은 관계자들과 팬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최용석 기자 gylyong@donga.com

◀허재 감독이 이끄는 한국남자농구대표팀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경기력도 기대 이하였다. 두 아들을 선발해 논란까지 겪은 허 감독은 5일 자진 사임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뉴스스

### 로드FC 첫 대전 경기 열린다



로드FC가 XIAOMI 로드FC 050 정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메인이벤트는 최무겸(왼쪽)과 이정영의 페더급 타이틀매치다. 사진제공 | 로드FC

## 최무겸 vs 이정영

챔피언 최무겸 로드FC 050 출사표  
11월 3일 충무체육관서 4차방어전

ROAD FC 국내 최대 규모 격투 단체 로드FC가 처음으로 대전을 찾는다. 11월 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로드FC 050을 개최한다.

로드FC는 한국 프로스포츠 최초로 중국, 일본 등 해외 진출에 성공해 대회를 개최해온 글로벌 격투 단체다. 국내에서는 '격투 스포츠의 심장' 서울 장충체육관을 중심으로 부산, 구미, 원주, 충주 등 전국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를 운영중인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히와 협업해 대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대전에서 개최하는 첫 대회인 만큼 대전 시민들을 사로잡을 알찬 대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로드FC 050의 메인이벤트는 '페더급 챔피언' 최무겸(29·최무겸팀)의 4차 방어전으로 확정됐다. 상대는 3월 XIAOMI 로드FC 046에서 김세영을 꺾고 페더급 컨텐더로 선정된 '페더급 호랑이' 이정영(23·썬스타)이다.

최무겸은 어떤 경기를 자신의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는 타고난 경기 운영 능력을 매 경기 보여주고 있다. 2014년 관배용을 꺾고 '페더급 챔피언'에 오른 뒤 3번의 방어전에서 모두 승리해 로드FC 최다 타이틀 방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페더급 최강자다. 이번 대회에서 승리하면 4차 방어에 성공해 자신이 세운 최다방어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최무겸은 "체육관을 열고 그동안 관장으로 지내다보니 거의 2년 만에 경기를 뛰게 됐다. 4차 방어 성공이라는 기록보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번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 보여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 1 지속적 투자 2 인재풀 확충 위한 장기플랜 3 한국형 배구 완성

### V리그 레이다

#### AG가 한국배구에 던진 숙제

사상 첫 남녀동반 결승진출을 노렸던 우리 배구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 은메달(남자)과 동메달(여자)의 성적표를 받았다. 현재 전력이나 세계랭킹, 배구 인프라에서 이란(남자)과 중국(여자)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반 결승행을 원했던 팬들과 배구인들에게는 아쉬운 결과다.

AG는 2020도쿄올림픽을 위한 과정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배구는 새로운 과제를 많이 받았다. 시간은 차츰 다가오고 해야 할 일은 많다.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을 이끌었던 남녀 사령탑과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던 해설위원으로부터 한국배구의 숙제가 뭘지 들었다.

#### 우리만의 배구 찾고 준비해야

##### ●김호철 남자대표팀 감독

이란과의 결승전에서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선수들이 긴장해서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절실히 느낀 것은 두 가지다. 우선 우리만의 배구를 찾아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배구는 스피드와 높이를 앞세운 세계배구의 흐름을 따라가기 바쁘다. 우리 배구의 특징적인 V리그에서는 용병의 높이와 파워에 의존하는 배구를 하다보니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다. 스피드와 높이도 중요한 요소지

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다른 뭔가를 해야 한다.

역시 기본기와 테크닉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될 텐데 우리보다 기량이 떨어지던 아시아권 선수들이 지금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따라잡고 때로는 앞서간다. 결국은 많은 투자가 해답이다. 4년 6년 8년 등 장기계획을 세워 젊은 선수들을 많이 선발해 훈련시키고 성적이 필요한 대회와 경험을 쌓는 대회로 대표팀을 2원화시켜 유망주들이 많은 국제대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어린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 주축 대부분 30대...미래가 더 문제

##### ●김상우 KBS 해설위원

아시아 각 팀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놀랄 정도다. 우리 팬들은 한국배구가 여전히 최강이고 상대를 쉽게 이길 것이라고 믿지만 착각이다. 우리가 두 번 붙어 모두 3-2로 이겼던 대만은 카타르를 이기고 동메달을 땀다. 만일 키가 좀더 컸더라면 우리를 뛰어넘을 실력이었다. 파키스탄을 보고도 놀랐다. 모든 팀들의 실력이 평준화됐다. 많이 차고 올라왔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우리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이 30대다. 이들이 떠나가고 나면 뒤를 받쳐줄 선수가 없다. 그게 더 문제다. **연발연** 이번엔 2진을 내보냈다. 그 선수들 모두 키가 작았지만 그래도 경기를 재미있게 했다. 우리는 그런 2진조차 없다는 것이 큰 걱정이다. 일본도 2000년대 초 중반 스

피드배구에 몰입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우리에게 판권이 됐다.

한국배구의 미래를 위해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선수 숫자가 너무 적다. 그러다보니 선수들을 훈련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훈련이 힘들면 배구를 포기해버려 지도가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기본기가 떨어지는데 어린 선수에게 꾸준히 투자하고 키우지 않으면 4년 뒤에는 3등도 어렵고 본다.

#### 서비스 리시브 등 기본기부터 다져야

##### ●차혜원 여자대표팀 감독

많은 배구팬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 승리를 자신했던 태국과의 준결승전에서 왜 그렇게 허무하게 졌는지 선수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책할 정도였다. 반드시 이겨야한다는 부담과 팬들의 높은 기대치에 몸이 무거워진 선수들이 눈만 가고 몸이 따라가지 않았다. 이번 대회를 통틀어 가장 못한 경기인데 그 결과에 나도 선수들도 많은 것을 느꼈다. 9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반드시 태국에 설욕할 것이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6주 동안 합숙훈련을 통해 서비스 리시브와 수비훈련을 많이 했지만 아직 약점이 고쳐지지 않았다. 특히 한 자리에서 서비스 리시브 불안으로 연속 실점하고 팀이 흔들리는 점이 문제다.

우리 배구가 앞으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선수들의 기본기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기본기 강화는 이번 대회뿐 아니라 우리나라 배구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고생한 선수들은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9일부터 다시 소집해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한다.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을 나를 포함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잘 알고 있다.

#### 태국전서 약점 노출...안정감 부족

##### ●이숙자 KBS 해설위원

안쓰럽게 대표팀을 지켜봤고 결과에 화도 났다. 올해 국제대회 내내 우리 대표팀은 준비과정이 불안해 보였다. 팀플레이에 기복은 있어도 어느 정도는 한다는 느낌과 신뢰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확신을 VNL과 아시안게임 내내 주지 못했다. 기복이 심한 도깨비팀은 우리였다. 준결승전 태국전은 우리가 못하기도 했지만 상대가 워낙 잘했다. 우리는 일본을 대비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사실상 태국이 일본보다 더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기술도 화려했다. 전술적으로 상대의 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팀에 우리는 약점이 있는데 태국전에서 그 것이 드러났다. 또 태국 세터 낫사라가 그 동안은 패스가 뜰수록 좋고 공이 날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새로운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꾸준히 출전하다보니 세트가 훨씬 안정됐고 정확했다.

남녀 사령탑과 해설위원의 평가를 종합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와 대표팀 인재풀을 넓히기 위한 장기계획, 한국형 배구스타일 완성이라는 키워드로 한국배구의 숙제가 좁혀진다. 이것을 풀기 위해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배구의 골든타임은 끝나가고 AG는 남들의 축제가 될 수도 있다. 김중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